

# Sorbic Acid, 일본-중국 “한판”

## 중국산 품질차이 불구 영향력 확대 ... 미국가격 kg당 3달러 이하

세계 Sorbic Acid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의 판매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산 식품의 불신감 확산과 더불어 일본시장 유입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 하락세도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및 중국의 솔빈산 생산기업들은 미국수출을 중심으로 생산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솔빈산은 세계 수요가 약 4만톤으로 추정되는데 최대 수요국인 미국은 약 1만5000톤으로 나타나고 있고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등이 2만5000톤을 소비하고 있다. 세계수요는 연평균 3% 신장하고 있다.

솔빈산은 가공식품, 포도주, 애완동물 먹이, 과일주스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홍차의 가열살균 대체제품으로, 또 멕시코 요리의 토르띠아 등으로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솔빈산은 곰팡이방지 및 부패방지 효과가 높고 가격이 싸며 맛과 향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자연지향 추세가 강해 화학합성품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다.

특히, 일본의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1500톤 정도였던 수요가 1000톤 수준으로 감소해 Daicell Chemical은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Daicell 化學은 新井공장의 생산능력이 6000톤으로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2002년 여름에는 중국기업을 인수해 9월부터 Daicell Chemical 이름으로 생산을 개시했는데 생산능력이 4000톤으로 대부분을 미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품질체크, 원료조달, 생산효율 등의 검증을 거쳐 2002년 말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나 수요동향에 따라 생산능력을 1만톤으로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Daicell은 2002년 초부터 수출가격을 15% 인상했지만 가격인상 부작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솔빈산은 독일 Nutranova이 1만톤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중국도 솔빈산의 주요 생산국으로 南通 등의 대형공장을 포함하면 생산능력이 1만5000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또 현재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2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는 중국제품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2년에는 식품위생 문제, 원료의 원산지 증명 필요성에 따라 중국제품의 선호도가 하락해 일본제품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인 생산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솔빈산 가격이 큰 변동 없이 kg당 800엔에 정착돼 있지만 북미 및 동남아에서는 중국제품의 판매공세에 따라 크게 하락했고, 미국가격은 kg당 3달러 이하에 거래되는 제품이 나오는 등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Daicell Chemical은 중국제품이 품질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물량공세의 영향은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10>